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제 3강: 복음의 진전, 제1부, 빌립보서 1:12-18a,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매튜 S. 하몬 박사가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강해는 복음의 진전, 1부, 빌립보서 1장 12-18절 상반절입니다.

빌립보서 연구 세 번째 강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복음의 진전, 1부'이며, 1장 12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구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편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에서 인사와 감사의 표현이라고 불렀던 지난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의 유익을 함께 나누는 교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복음의 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이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문학적 단위는 12절부터 26절까지이지만, 전체를 서둘러 넘기지 않기 위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겪은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갇힌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온 황실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들은 내가 투옥된 것을 계기로 주님 안에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데 훨씬 더 담대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어떤 이들은 선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후자는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이기적인 야망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진심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나를 괴롭히려는 속셈입니다. 그렇다면 어찌겠습니까? 오직 어떤 방법으로도든,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12절부터는 바울의 상황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자신이 복음 전파를 막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 실제로는 복음 전파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상황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점, 아마도 서기 57년경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 뜰에서 체포되어 유대인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 때문에 지중해 연안 도시인 가이사랴 마리티마로 이송되어 헤롯 아그리파의 궁전에 감금되어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 후 로마로 옮겨졌는데,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의 항해 중 난파 사고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내 바울은 서기 60년경 로마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가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편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의 상황은 다른 지역과는 다소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빌린 아파트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비와 식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로마 당국은 24시간 내내 교대로 경비병을 보내 바울에게 쇠사슬로 묶여 감시하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다소 덜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임대료를 내주는 것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선물과 기부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거비와 식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로마 경비병들에게 쇠사슬로 묶여 매일 6시간씩,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의 투옥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언급할 때, ESV 번역처럼 '황실 경비대'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황실 경비대'는 (ESV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만) '프레토리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팔라티노 언덕에 있는 황제의 궁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황제가 로마에서 살았던 건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궁전에 소속된 병사들이 살았던 병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그것이 근위대 병사들을 위한 대규모 상설 주둔지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근위대 병사들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바탕으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위대에 대한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위대에는 약 9,000명의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황제의 정예 경호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군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황제를 폐위시키고 즉위시키는 데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감시하고 그에게 사슬로 묶여 있는 등 4시간 또는 6시간씩 교대로 일했습니다.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투옥 소식이 근위병 전체에 알려졌다고 말할 때, 그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 병사들 모두가

자신의 투옥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첫 번째 요점은 복음이 근위병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그의 투옥이, 그가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이 근위병들이 그의 투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권위를 가진 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이 상황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병사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병사들에게 꽤나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약간의 상상력이 가미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병사들이 들어와서 네 시간 동안 바울에게 사슬로 묶여 있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포로가 된 관객처럼 말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예상하는 변화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이 병사들 중 일부는 그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며, 실제로 회심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는 것에 너무 짜증이 나서 아마도 동료 병사들과 교대 근무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요, 제발 제가 바울과 교대하는 역할을 맡아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남자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네 시간 더 듣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매료되었다.

이상하네. 바울은 25년, 3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였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잠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정말 이상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실제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편지 말미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4장 22 절에서 바울은 친위대 형제들의 안부를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면, 거리를 걷다 보면

평소에 마주칠 법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그 환경으로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 전파에 재앙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에 전하기 위해 세우신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계획입니다. 바울이 근위병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에 즉각적인 공감을 보이거나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운 집단에서 복음이 놀랍도록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근위병들 사이에서만 전파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우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일부 신자들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 예상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바울처럼 잘 알려진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되었다면,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어떤 신자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과 사도행전 4장 29-31절에 나오는 내용 사이에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박해를 받은 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큰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들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간과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확신이 주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을 다시 보면, “내가 투옥된 것을 통하여 대부분의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로마의 신자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들의 확신이 더욱 커져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데 더욱 담대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박해가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박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멈추고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정말 좋은 일이야.”라고 말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상반된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처음에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 바울이 투옥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음, 사역을 하는 방식으로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쟁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자신만의 추종자들을 모으고, 자신만의 사역을 구축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로마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들은 이 기회를 틈타 로마의 공백을 메우고 자신만의 사역과 추종자들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심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한 마음과 정욕에서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야망이나 경쟁심,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울이 18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결론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거짓으로든 진실로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에 기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그들의 동기가 경건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최고의 교회 개척자이자 선교사, 사도였던 그에게 엄청난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을 벤치에 앉혀두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상한 방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한 발짝 물러서서 복음이 여전히 활발히

전파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본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기도를 드리거나 그런 마음과 싸운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더 중요한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겠습니까? 이 구절의 맥락에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자들의 경건함의 성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기로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바울이 자신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택함받은 자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다시 말해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16절에서 그는 신자들이 자신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는 또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택함받았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적절한 자리에 두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울의 교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특정한 상황에 두셨는지, 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항상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 장소에 두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항상 “주님, 제 상황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려 하십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의 회심을 통해 전파됩니다. 이는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른 신자들의 담대함을 통해 전파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담대함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담대함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계획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예상치 못한, 혹은 특이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기서 드러나는 역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위협적인 존재였던 바울을 투옥했지만, 그는 오히려 카이사르의 측근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를 말썽꾼, 즉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인물로 여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과 어떻게 관련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담대함이 부족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개념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이야기해야 할 만큼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심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존경심, 그리고 경이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담대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손해가 따를 수 있다면 전하지 않기로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끔찍한 현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고, 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속 한구석에 묻어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나누는 데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큼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반론을 해소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복음을 거부하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특정한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변호하는 일의 일부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자신의 경험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적어도 그 내용의 일부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히 반론에 맞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논쟁으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나 변증적 토론, 논쟁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득력 있는 기술이나 변증적인 논증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제 젊은 시절 사역 경험 중 하나는 대학 캠퍼스 사역의 정규 직원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가 큰 공립 대학에서 매일 전도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복음에 대한 모든 반대가 심각한 반대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연막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정당한 지적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그런 질문들에 답하고 함께 논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반박하는 내용이 연막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가정해 봅시다.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가상으로 가능하다고 해볼게요. 만약 제가 당신의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바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제가 듣는 대답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습니까? 만약 제가 당신의 모든 이성적인 반론을 해소해 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 당신을 막고 있습니까?" 대개 그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걸림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다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복음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그 반대 의견들이 그다지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질문은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본문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사람들의 동기를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과 제가 앞서 언급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차이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소위 ‘문제아들’이라고 부르는 무리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그들이 다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그들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게 봐도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자체는 옳더라도, 불경건해 보이는 동기를 지적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다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이 복을 받을 때 시기심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엔 그들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기 쉽지.”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의 동기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복음의 진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이 구절의 후반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적용에 대한 몇 가지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네 가지 기준, 즉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소망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느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안락함보다 훨씬 더 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편안함이 최우선 목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가볍게 또는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정말 힘든 일들의 현실을 경시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특정한 상황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슬픔과 고통, 좌절을 겪을 이유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러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기회가 되든, 다른 신자들을 격려하는 기회가 되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소망하고 느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일상에 안주하다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만한 사람 한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여쭙보세요. “주님,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주셨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예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 받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때는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이것으로 이 구절의 첫 부분, 즉 복음의 진행 과정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복음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돌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